

박 영 자(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I. 서 론
- II. 생존 전략: 권력에 대해 비껴가기
- III. 발전 전략: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 IV. 결 론: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하여

I. 서 론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시장사회화’와 사회문화적 변화가 제기되면서, 북한주민의 일상 생활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북한여성의 생활방식과 의식 변화가 다양한 통로로 확인된다. 대내외적 위기로 사회변동을 경유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인구 다수를 차지하며 ‘생산적 노동’으로 가족단위 중심의 주민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여성들이, 군대를 앞세워 비생산적 사회위계를 지속하는 북한정권에 대해, ‘자신의 삶에 이롭게 비껴가거나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당-국가 간부와 평양지역 및 군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 권력층의 지지 세력이 북한주민의 다수가 아니며, 그들 내부도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북한 정권의 핵심 권력층과 공존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변동시기 북한의 평범한 다수 일상인들은 현실의 위기 극복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북한 상황 변화로 인해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학계에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와 변동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변동과 함께 오는 사회구성원의 변화, 특히 북한여성의 생존전략과 발전전략은 절대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 특성에 가리어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특히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사회 준비를 위해, 젠더 관점에 기초한 ‘북한여성의 의식과 행위 이해’¹⁾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미비하다.

기존 북한여성 연구는 권위주의적인 절대권력체제라는 북한정권의 성격에 과도하게 짓눌려 북한정권의 여성정책 및 담론분석에 치중되어있다. 사회와 가정 두 공간에서 이중 노동을 함에도 그 정치사회적 지위가 낮은 북한여성을, ‘피동적인 희생자’로 인식하는 권력의 가부장제 관련 연구에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생물학적 차이(Sex)에 기초한 여성의 희생

1) 선(先)경험 사례인 독일통일 후 독일 사회와 여성계는 동서독 주민과 지역 간 불화로 장기간 갈등을 경험하였다. 구(舊) 서독사회 및 여성계가 남한에 비해 상당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통일 후 평가는 ‘우리가 동독여성을 너무나 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북한의 위기지속과 사회변동, 그리고 탈북여성 증대 등으로 한국여성계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북한여성 알기”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한국여성계의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풍부한 문제의식들은 광복60주년,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으로 2005년 5월 10일 여성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여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란다(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5).

과 피해를 보여주기에는 한다. 그러나 성기(性器)의 다름으로 인한 자연적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위계적 사회체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양성평등의 젠더(Gender) 시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²⁾

북한권력이 여성에게 가하는 가부장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경향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성(性)의 불평등한 배치’로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권력의 성불평등한 지배방식과 여성들의 고통 등을 드러내는 데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권력층의 시각으로 행위자를 인식하는 오류에 빠져,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과 행위 발전’을 간과하게 한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꿈꾸는 여성 세계’는 절대권력에 의해 실종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국가권력이 여성에게 가하는 작용’만을 보여 줄 뿐이기에, 사회적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변동의 첨병 역할을 하였던 여성세계는 사장될 위험이 크다. 결국 ‘여성이 없는 여성이야기’, ‘가부장적 권력의 시각에서 본 여성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본 발표는 경제위기 지속 상황에서, 위계적 사회체제를 지속하는 북한권력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충성에 대해, 북한여성은 ‘오늘을 사는 생존전략’과 ‘내일을 꿈꾸는 발전전략’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실태 및 양상을 규명하고,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한국 사회와 여성계의 총적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젠더 시각에 기초하여 ① 북한 여성의 생존전략, ② 북한여성의 발전전략, ③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향한 과제를 다룬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탈북민 심층면접/서베이 결과들을 동시 활용한다.

II. 생존 전략: 권력에 대해 비껴가기

국가수립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북한의 여성정책은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에 사회적 역할을 부가한 ‘어머니-노동자 이중역할론’이었다. 이중역할론은 북한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규율되었던 북한의 여성상이었기에, 기본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에도 가사-육아와 사회-조직 생활을 동시에 해야 했던 북한 여성, 특히 어머니들은 이중적 노동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전개된 북한의 식량난과 선군정치는 북한여성에게 과거의 이중노동 부담과는 그 강도를 비교할 수 없는 생존 책임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생존위기 상황에서 북한여성들의 생존전략 양태는 크게 내핍과 출혈노동, 관계망 극대화, 출산기피, 성매매 등으로 나타났다.

1. 내핍과 출혈노동

오랜 세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일상생활 관리의 주체로 구성되었기에, 일상생활 지속의 어려움이나 위기의 시기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은 가족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내핍과 출혈노동을 감내하곤 한다. 그리고 한 체제 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군사 및 군수공업일 때, 일상생활 세계를 꾸려나가는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내핍적 생활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고난의 행군을 경유하며 상당한 인구가 기아로 죽거나 실종되는 절대위기 상황과 선군정치로 인한 남성부재 사회에서, 북한여성들은 내핍과 출혈노동을 넘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었

2)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 *Gender, Work, Space* (New York: Routledge, 1995).

다.

이 현실은 여성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 장사하며 만나는 여성들끼리 “달리는 여맹, 앉아있는 당, 서 있는 사로청(현재 청년동맹)”이라 말한다고 한다.³⁾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서 당은 그저 편히 앉아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만 내리고 호통만 친다고 해서 <앉아있는 당>이라 하며, 사로청으로 대표되는 남성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고 해서 <서 있는 사로청>이라 한다. 반면 여맹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길 닭기.마을청소.수해복구.농촌활동 등에 동원되고, 낮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서 가족생계를 지탱하는 등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여맹>이라고 한다는 것이다.⁴⁾

고난의 행군 시기까지도 북한사회 전체적으로 장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으며, 장마당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고 천하게 여겼다. 그러나 상당수 북한여성은 “이러다 내 식구 다 굶어죽이겠다.”라는 가족생계의 절박함을 느끼며, 장마당에 나서고 먹거리를 찾아 별의 별 장사를 다 해보았다고 한다.(KMH, 60대 초반 탈북여성) 이들 대부분은 대개 새벽 4-5시경에 일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길을 나선다. 그리고 저녁 10-12시 넘어 집에 도착하면 잠깐 잠들었다 밥해 놓고 다시 장사에 나서는 것이다. 보통 70-80리 구간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느라 뛰어다닌 상황이다. 그 중 장사 수완(手腕)이 좋아진 여성들은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며, 자산(資産)을 축적한 소수는 시장화의 주역인 돈주로 활동하거나 트럭을 사서(실질적으론 국가 기업소 및 기관 소속의 트럭을 임대하는 형태) 큰 장사를 하곤 한다.(KSH, 30대 초반 탈북여성)

이렇듯 북한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식량난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군대 및 군수 산업에 상당수 남성들이 동원되었고, 체제유지를 위한 각종 기관의 구성원이 주로 남성들이기 때문이며, 더불어 북한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문화 때문이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들은 대개 양육과 일상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가사 및 육아를 여성의 고유역할로 인식하기에, 여자들이 다 애를 들쳐 업고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KMS, 30대 중반 탈북여성). 이에 대해 한 탈북민 여성은 “집지키는 명명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여자들이 벌어 먹이지. 거기는 여자들이 죽다 살아요. 응당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북조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라고 증언한다.(KSL, 40대말 탈북여성) 이러다 보니 북한여성의 영양상태가 악화되었다.⁵⁾

이 같은 북한여성의 내핍과 출혈노동의 배경에는 북한정권의 집단주의와 군사주의가 놓여 있다. 집단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단지 가족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체제의 기본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은 가족 내의 종속적 존재로 간주된다.⁶⁾ 그리고

3) 여맹(북조선민주여성동맹)은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만 31세부터 55세까지의 북한 일반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중조직인데, 1995년 식량난 이후 매매(賣買)를 위해 시장에 나서는 일반여성들을 대표하고 있다. 한편 사로청(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명 변경되어 현재는 청년동맹으로 약칭)은 청년학생직장인·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북한사회에서는 주로 남성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당(조선로동당)은 권력층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4)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8호(2006년 9월호).

5) 영양부족으로 인한 신체변화에 대해 한 탈북여성의 증언을 살펴보자. “영양이 약하니까 월경이 다 없어지고, 몇 년씩 월경을 못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내 시기 놓고 보니까 하루는 내 저기 청진이라는 데 가서 집 단진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갔는데 거기 우리 여자들이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15명인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개네 다 월경을 안 하거든요. 3년이 됐는데도 개네가 이 월경이 없어졌어요.”(KSL, 40대말 탈북여성)

6)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 저, 광동훈 역,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서울: 현실문화, 1995), p.

선군정치는 북한 사회에 남성과 전투 중심적 군사주의가 과생하는 위계적 젠더 문화와 사회 가치를 확장시켰다.

다수 남성이 직간접적으로 국방사업에 동원된 남성부재 사회현실 속에서, 북한여성은 높은 비율의 사회노동 참여로 전쟁대비 및 농촌 지원 등 각종 동원사업을 수행하며 가족생존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 정권은 남성중심적 사회문화를 강화하고 여성의 '출혈 노동'을 정당화한다. 이때 생존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의 노동 가치는 온전히 인정되지 못하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군사우선 정책 지속과 자력으로 정상화될 수 없는 북한의 경제 상황 속에서, 하루를 온전히 생계노동에 바치는 여성의 노동은 선군정치에 종속되는 활동으로 평가되며 '생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즉, 노동에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뒤따르지도 않는다. 이 같은 현실은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북한체제를 아래로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심리적 저항감을 쌓이게 한다.

2. 관계망 극대화

일반적으로 여성은 공동체의 재생산 즉, 출산과 육아를 통해 구체적 인간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긴밀하게 관여하면서 인간관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어릴 적부터 많이 경험하고 익숙해지곤 한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양성평등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동체 내 인간관계에 훨씬 깊이 관여하고 뛰어난 관리능력을 보이곤 한다.

이 같은 성적 특성은 식량난과 함께 도래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북한여성이 생존을 위해 크게 3차원의 관계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로 작용했다. 생존을 위한 관계망 중 가장 중요한 1차 관계망은 가족관계이며, 2차 관계망은 안면관계 및 뇌물을 매개로 한 관료와의 관계이다. 3차 관계망은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망이다. 이외 과거 직장이나 인민반을 통해 알게 된 관계망이 있으나,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장이나 인민반 내 관계망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 비해 생존 및 일상생활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주민 생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1차 관계망인 혈연 네트워크의 힘에 대해 한 탈북여성, “저희는 중국에 저희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있으니까 드문히 도움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중국에 있으면서 돈도 좀 보내주고 물품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지하며 살았어요...도움으로 살지 도움 없으면 못 살죠,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요. 아무 것도 없는데 뭘로 하겠어요.”(KMS1, 30대 중반 탈북여성)라고 증언한다.

생존에 기여하는 2차 관계망은 일상생활과 시장에서 북한주민에게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하급관료와의 관계 친밀도이다. 이 관계는 사회 전반에 관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된 후견-피후견 관계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질적 이익을 매개로 한 직접적이나 비인간적인 관계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상화된 뇌물과 인간관계의 비신뢰성이 주요 특성이다. 예를 들어 “단속을 맞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또 밀어 넣고 이렇게 고이고서 또 빼내고, 이려고 또 다시 팔고, 뭐 계속” 그런 상황이다.(KSH2, 40대 중반 탈북여성)

특히 검열 및 통제단위인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소속원들이 가장 광범위한 2차 관계망의 대상이 되고, 이익의 규모가 클수록 관계대상인 관료의 직위가 높아져 당과 검찰 간부들

이 주 대상이 된다. 그 외 구역 사로청(현재 청년동맹)에서 청소년 교양소조를 따로 조직해서 99년도부터 ‘청소년교양소조그루빠’를 조직해 시장을 단속했는데, 이들도 액수는 적더라도 뇌물관계에 얽혀지곤 한다. 각종 명목으로 걷는 소규모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3차 관계망은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인간관계이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이나 인민반 등 직업 및 지역을 통해 알게 된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공장과 기업소가 가동되지 않고 시장이 생존에 중요 공간이 되며 생존과 매매를 위한 다양한 이동이 확대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직업이나 거주지를 매개로 한 관계망은 북한주민의 생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생계해결이나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증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게 무슨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관계없더라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 장사 시작하고 보니까 그 마을 그 도움이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먼저 이렇게 눈 떠가지고 어떤 장사를 먼저 시작했는가, 저 사람이 어느 만한 이익을 보고, 생활이 어떻게 피는구나 이러면 다 그걸로 하고, 우리 00동에 신발이 이렇게 먼저 선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먹고 살기 또 유리해지니까 그게 다 우리 특수예요. 스물여섯 세대에 네 세대인가 빼놓고 몽땅 신발 했어요, 우리 00동은. 그와 같이 제품 날라 오는 사람들도 중국집이면 중국에 이렇게 친척한테 가서 상품을 차로 실어 들었잖아요? 이러면 돈만 있는 사람들 대상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또 인간관계로 외상으로도 주고 이렇게 그 마을 마을 돌며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직장에 관계없이 내가 장사해보고 싶다면 그런 거 외상 쥐어서 날라 올 수도 있고.”(KMH, 60대 중반 탈북여성)

북한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해야 했던 것은 무엇보다 여성이 일상생활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군사주의적 젠더 정책이 파생한 성별 역할규범 때문이다. 국가권력에 위한 성별 ‘차이의 정치’와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특성, 그리고 위로부터의 강제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 체득한 습속이 결합되면서 나타난다.

또한 대개 여성들이 가족 내 가부장 권력인 아버지와 남성형제와의 갈등 속에서 남성보다 먼저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전략인 순응과 타협, 또는 침묵과 저항을 통해 자신의 신체보호와 이익추구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능력은 한편으론 사회규범과 연계되어 인간관계의 갈등을 조절하는 여성의 관리능력 또는 부드러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남성보다 훨씬 강한 위기 대처능력 및 인내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가족해체와 출산기피, 그리고 성매매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북한지역에서 나타난 대표적 사회현상은 생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해체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꽃제비 증대는 가족해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며, 사회혼란 유발가능성 때문에 북한당국이 특히 중시하는 문제였다.⁷⁾

1997년도부터 북한당국이 전국적으로 ‘꽃제비 구제소’인 <917상무>를 군당에서 조직하여 활동하게 할 정도였다. 증언에 따르면 <917상무>는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면서 부모가 없어지거나 헤어지게 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길가·역전·시장 등을 떠돌아다니는 어린 꽃제비들이나, 기아나 정신 또는 육체 장애로 거리를 헤매는 일부 나이든 꽃제비들을 모아 죽이라도 썬서 주는 등 꽃제비들을 돌보는 조직이다. 그러나 식량 배급이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고 꽃제비들은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시체를 처리하는 게 주요 업무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917상무>에서는 시체들을 관도 없이 가마니 등으로 말아서 한 구덩이에 묻곤 했다고 한다.(KSH1, 30대 초반 탈북여성)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난의 피해를 크게 본 지역이 함경도였다면, 이후에는 평안도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 평안도 지역에 꽃제비 전락 가정의 증대되었다고 한다.⁸⁾

한편, 가족해체의 여러 양상 중 생존전략과 관련된 대표적 현상은 출산기피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상당한 인구를 상실한 북한정권이 2000년대 들어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기존 가족성원의 생계도 책임지기 힘든 북한여성들은 임신을 기피하고 임신해도 낙태(소파)를 많이 한다.(KSL, 40대말 탈북여성) 특히 생계해결을 위해 별거하는 가정이 증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가 밖으로 나서야 하는 가족 중에서 장사나 양육 문제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KMH, 60대 중반 탈북여성)

다음으로 성을 매개로 한 북한여성들의 대표적 생존방식 중 하나인 성매매이다. 북한사회 내 성매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의 성교육 수준 및 성의식, 성매매 원인과 확산경로,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사회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신체적 변화가 큰 청소년기에도 성문제나 성매매에 대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교육의 부재와 함께 성문제에 대한 사회규율 또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문제에 대해 개인적이고 부끄러운 것,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은밀한 것 등으로 느끼게 하는 봉건적 사회풍토가 부가되어, 북한여성들은 성문제 그 자체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낮다. 이로 인해 성문제가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거나 성의식 자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자의적이거나 굴절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다. 즉 성을 수단화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식량난 이전에도 공공연히 문제가 되었던 입당이나 특혜를 위한 소수 여성과 남성 간부 간에 발생한 성상납이다.

이 같은 성교육 및 성의식 부재 상황에서 발생한 식량난이라는 생존위기는 성의 수단화를 증폭시켰고, 성매매 자체가 생존수단이 되게 하였다. 그 양상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성매매가, 라진-선봉시를 중심으로 중국인 왕래가 자유로웠던 지역에서 시작되어 항구 및 역전과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고, 성매매 상대도 중국인 중심에서 일반 주민과 군인 등으로 변화되었다.

먼저 성교육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여성들은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드러나고 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학교 시기에, 성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집단주의적 교육과정과 성문제를 터부시하는 가부장적 분위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성(性)에 대한 정보 및 사고 소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북한 교과의 ‘여성교육’은 어떠한지 증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북한 당국은 당시 전국 꽃제비들을 약 3-4만 명으로 추산한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 82호(2007년 7월 25일자).

8)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83호(2007년 8월 2일자).

“여학생 실습은 중학교 2학년에 배우는데 열두 살, 열세 살부터 배우는데, 그 시간에는 주로 옷을 하는 미싱법, 손수 놓는 법, 음식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배웠어요. 2학년 때 여학생 실습시간에 마지막에, 여성위생이라는 거를 가르치는데, 딱 한 장 나오더라구요. 제가 배울 때에, 그때는 생리나 그런 거를 이성에 대한 거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과 위생」 부분이 있었는데, 맨 뒤에 보면 달거리가 나오고,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적으로 피가 흐르는 것을 한글로 써놓았어요.외국사람은 몇 살 때부터 하고, 우리 조선인은 어떻고, 이건 병이 아니다라고 하고, 임신 주기나 그런 거는 안 나오고. 딱 요렇게 한 페이지가 나와요. 우리가 중학교 열여덟 살에 졸업하는데 위생을 한다라는 이게 다예요.”(KYJ, 30대말 탈북여성)

“피임 뭐 이런 거는 안 배워 주고 그냥 뭐 위생하고 이런 데서는 또 말 다르게 하니까. 그런 거, 그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우리는 임신하는 줄 알았어요.”(KSY, 30대 초반 탈북여성)

다음으로 성매매 원인과 확산 경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량난 이전에도 입당을 위한 성상납은 있었으나, 식량난 이후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성거래가 라진-선봉시를 중심으로 중국인 왕래가 자유로웠던 경제특구에서 시작되어 항구와 역전 및 도시 전반으로, 그 매매 주체도 처녀뿐 아니라 아이 엄마들로, 상대도 중국인 중심에서 군인과 일반주민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들어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성매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성매매의 대표적 문제는, 성상식 및 신체보호 의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의 생존 수단화가 여성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손상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전에 역전 앞에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매독이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도 많았다”(KSL, 40대말 탈북여성)고 증언할 정도이다. 성관련 전염병의 급속한 증대 뿐 아니라, 피임관련 정보 및 성의식 부재가 여성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한다.

관련하여, “북한엔 피임이 없어요.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 같은 거 알지도 못 해요…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파를 하고, 어떤 여자는 한 열 번도 해요. 우리 여기 탈북한 여자 중에요 열두 번 한 여자도 있대요. 그러다가 하도 수술을 하니까 이제는 병원에서도 안 해줘요. 애들을 하도 안 낳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기 힘든데 누가 낳아요. 이제 몇 년도 정도 있으면 북한의 인구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해서 낳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누가 그래요? 있는 자식들도 굶겨 죽이는 판인데. 어쨌든 부부생활은 하니까, 애는 생기고 해서 가서 생기면 소파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소파수술, 애기 굶어 내는 걸로 몸을 버려야 하고”(KSL, 40대말 탈북여성)라고 증언한다.

III. 발전 전략: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장경제의 확산과 장마당 활동, 정보 유통, 국경 왕래가 잦아지면서 북한여성들은 ‘돈의 맛’을 알게 된다. 이와 함께 생존에 급급했던 북한여성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긴다. ‘오늘보

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적 재산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통제와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즉 북한여성의 발전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1. 시장사회화와 사유재산 축적

익히 알려져 있듯 북한의 시장 운영주체는 여성으로, “시장 나가서 돌멩이 뿌리면 맞는 여자”라고 할 정도이다.(KSY, 30대 초반 탈북여성) 그 기초는 1984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이후 기혼여성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된 가내작업반과 각종 부업 활동에서 얻은 개인별 수입과 생산물 유통이다. 북한여성들이 공장과 농장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8·3제품 생산과 판매로 능력에 따른 수입을 갖게 되면서이다. 대개 공식적 판매루트는 인민소비품 상점이며, 비공식적으론 농민시장(장마당)과 암시장 또는 암거래였다.(KGC, 50대 초반 탈북여성)

1980년대부터 북한의 공장이 자재 및 원료 문제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에 난황을 겪는 등 북한의 경제위기가 외현화된 시기, 폐자재와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비품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려한 북한정권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계획경제완 별도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제2경제) 형성과 2007년 현재 북한 시장사회화의 일 배경이 되었다. 또 다른 배경은 북한의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 하에서 남성중심으로 구성된 군대와 군수산업 주도로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 및 식량난을 극복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군사주의 노선이 지속되면서, 일상 경제활동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북한 내 시장을 형성 및 강화하고 사유재산을 축적하였다. 생존을 위해 시작된 장사행위가 시장을 활성화 하면서 북한의 시장사회화를 진전시켰다. “...시장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잖아요. 물가도 시작되고, 식량도 지금 모든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다 시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된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이제는 없어졌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KSH1, 30대 초반 탈북여성)라고 증언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사의 주체인 여성들의 사유재산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북한여성들은 시장의 효용성을 경험하고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개인의 삶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즉, 생존전략을 넘어선 발전전략이 구사되는 것이다.

애초에 북한여성들이 장사에 적극적이거나 호의적이진 않았다. 오히려 계획경제와 봉건적 사회문화 속에서 장사를 천시하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서 장사를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면서 장사와 시장에 대한 의식은 확연히 달라졌다. 그 결정적 계기는 소위 ‘돈의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돈이라는 물질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삶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큰 매개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증언들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장사하자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이라 막 당황하기도 하고 남이 볼까봐 창피스러워서 아는 사람 지나가면 고개를 막고, 장사하는 거 처음에는 망신으로 생각했거든, 수치로. 그렇게 교양 받았으니까...그러다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쥐고 나가는 거예요, 팔아보겠다고....”(KMH, 60대 초반 탈북여성)

“고난의 행군 들어가기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영 천하게 생각하고, 장사를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이랬는데, 대체로 다 그랬단 말입니다...96년도 제일 힘들 땐데, 그래 나는 그저

집에서 도와주는 걸로 살고, 장사라는 것도 막 장사라는 거 창피스럽게 막 이러니까 ‘내 어떻게 나가서 장사하는가’ 이렇게 했지. 그런데 누구나 다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장사를 다 나가서 하고, 차라리 점점 가면서 장사를 못하는 게 더 창피스러운 정도가 됐지…장마당에서 거기서 재미 붙고…돈에 대한 개념 생긴 게 벌써 미공급 탁 들어가서부터 장사를 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탁 생기더라 말입니다,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사람이 ‘아, 돈이란 게 이렇게구나.’ 돈은 진짜 뭐 부자간에도 뭐 진짜 이런다는 소리. 그래 벌써 사람이 돈 맛이 드니까는 벌써 다 사회가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지고, 인색해지고, 그때부터 완전 자본주의로 싹…그런데 벌써 돈에 대한 개념이 탁 사람이 생기면서 이기주의 생기며 완전히 진짜 그 이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별난 짓을 다 하는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진짜 뭐 돈에 대한 거 생각 못할 때는 뭐 사람들이 그저 썩어라, 먹어라 그저 막 이렇게 다 공동으로 완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공급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KJJ, 30대 중반 탈북여성)

이렇듯 가내작업이나 부업 생산과 장마당을 통해 돈맛을 알기 시작한 북한여성들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유하며 돈이 단순한 생존뿐 아니라 나와 가족이 잘살고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급격한 의식변화로 물질만능주의 문제 또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규모에 따라 북한사회에 새로운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생활을 향한 욕구가 증대된다. 이 같은 욕구를 증폭시킨 외적 계기는 생존을 위한 이동의 증대와 정보 입수 및 교류이고, 이 흐름에 따라 개혁·개방 필요가 증대된다.

또한 시장사회화와 정보유입 과정에서 북한여성의 노동양상과 의식 변화가 물질적 이익 중시로 나타난다. 특히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과 남성중심적 군사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보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살펴보자.

“물론 사회적인 모든 그 환경이 이렇게 지배해준 것도 있겠지만 뭐 우선은 저한테는 돈밖에 길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저한테는. 제가 이겨야겠다고 선택한 길은 돈버는 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먼저 택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거, 저한테는 권력도 없고, 저는 능력으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력으로서도 안 되는 거고. 단지 사람이 쌀독에서부터 인심이 난다고, 상대방한테 뭘 주라 하게 되면, 뭐 가져라 하게 되면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나한테 뭐 있어야 또 남한테 그렇게 뭔가 해주는 거고 주는 거기 때문에, 난 나한테 뭔가 있어야겠다, 나한테 뭐가 있자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남한테 주고 남한테서 그만한 걸 받을 수 있다고 이미 전부터 저는 그걸 항상 생각을…”(PYO, 20대말 탈북여성)

“정말 우리집은 사람들이 착 들어왔다가도 시당책임비서도 이렇게는 못산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 눈앞에 화려하게 있잖아요, 다 집안 장식해놓고, 사 넣을 거 싹 넣어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들어와서 그저 얼떨떨해서 구경만 하는 거, 어쨌든 깨 고소하면서 리, 안전원들도 와서 돈 필요하다는 거 깨 고소하고 있잖아요, 내 앞에 머리 숙이는 거 나는 통쾌하고 깨 고소하고. 우리 아이들도 청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 이게 고난의 행군 전에는 가계만 보기 때문에 아이들 시집가기 참 곤란해요…고난의 행군 딱 들어와 장사 이렇게 하니깐, 아이들이 다 능력을 발휘해서 장사하니깐 이제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 길

을 생각하니까 돈 잘 버는 여자를 더 요구하고, 이제는 그런 걸 많이 선택해요. 부모들은 아직 고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설복하면서 무슨 ‘당중에서, 토대에서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러면서 이제는 부모들도 설복해요.” (KMH, 60대 초반 탈북여성)

2. ‘조직과 규범’으로부터 이탈

더 나은 삶을 향한 욕구는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는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표적 양상은 절대권력자에 대한 충성심 약화이다. 다음으로 주민 동원 및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력 약화이다. 특히 출신성분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불만을 가졌던 주민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와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등 권력이 강제하는 조직과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현재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북한체제의 절대권력자에 대한 신뢰 및 충성심이 김일성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선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는데, 김일성 있을 때는 좀 몰랐어요. 김정일이 그때부터는 솔한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다 중국으로 넘어왔겠죠…완전히 ‘사발 정치’, 사발 정치란 게 김정일이 사발 정치, 울타리 안에서만 정치 한다는 거죠. ‘그 사발 정치가 언제 끝나겠는가?’ 저네끼리 ‘이 사발 정치가 끝나야 된다’고 안전원들도 저네끼리 앉아서 막 그래요. 그래 내 그 소리 듣고 ‘안전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KSL, 40대말 탈북여성), “김정일이는 해놓은 거 없잖아요. 무슨 낱아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김정일 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격의 표현이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 뜻대로 아무거나 다 움직이자 하고, 앞에서는 밑에 사람들은 그 눈치 맞추려고 있잖아요…그러나 순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시에. 옛날처럼 그저 뭐 허리 굽히고 예, 예 이러지 않죠. 이제는 막 그저 제 멋대로 사업하고, 그저 말과 행동이 달라요.”(KMH, 60대 초반 탈북여성)라고 증언한다.

정권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서 직접적 저항이나 대중적 봉기를 확인하기 힘든 이유는, 군대 및 안보기구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 감시체제 작동 뿐 아니라 저항에 대한 피해가 ‘강하고 직접적인 위협’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연좌제가 불만을 조직하지 못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북한주민 통제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통제력 약화이다. 일반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종 사회적 동원과 모금은 계속되다 보니,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나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이 8.3노동을 하거나 “건들건들 하며 얼굴 한 번 비치고, 또 쓱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KMH, 60대 중반 탈북여성). 그 배경은 생계해결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 조직생활에 충실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노력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자기성찰과 사회 비판의식이 증대된 때문이다. 이 같은 자기성찰과 비판의식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로 확산된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살펴보자.

“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머저리처럼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고지식한 방법

됐었는가 하면 96년도에 사회생활이 다 이렇게 바빠 들어오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은 기업소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서 달아다닐 때 나는 낮에는 장마당 나가고, 밤에는 또 공장에 들어와 경비서고 이렇게 계속 머저리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공장을 못 잊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밤에는 공장경비 나와 서고, 낮에는 또 장마당 나가 장사하고 이렇게 이리다가... 본격적 장사로 나서면서 머저리라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장사를 하니깐 모두 부끄러워 안 해 가지고 장마당에 심부름만하는 데... 이제는 ‘야, 너네 야심 그렇게도 없는가? 내 같으면 이 좋은 기회에 벌자고 애쓰겠는데, 너네 돈은 1전도 안 다치겠는데 너네 다 벌어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시집갈 거 다 도둑 맞혔으니까 이제부터 너네 벌어서 시집갈 준비해라’ 이래 해서 개네 돈을 다치지 않으니까 돈 버는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 돈 붙어가는 재미가.”(KMH, 60대 초반 탈북여성)

시장사회화와 더불어 ‘자유에 대한 욕구’가 확산된다. 그리고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통제에 대한 저항 및 일탈이 증대된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적대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시장이 발전하면서 적대계층 주민들은 “돈 버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고 돈이면 권력도 명예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PYO, 20대말 탈북여성) 그 중에서도 출신성분으로 인해 진학이나 직장배치, 결혼 등으로 상처를 받은 이들의 의식변화와 일탈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과거에는 천시 받았던 일본, 중국, 남한 등 국외출신자 가족들이 각 나라의 친척들로부터 지원받는 걸 보면서 동경의 대상이 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가부장적 규범의 해체 양상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미혼모이거나 이혼을 하면 뒷말이 많아 그 지역에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스럽게” 된 것이다.(KMS, 30대 중반 탈북여성) 가장 광범위하게 드러난 사회병리적 일탈은 사기 및 각종 범죄 증대이다. 특히 시장경제를 여성이 주도하다 보니 경제사범의 약 80% 정도는 여성들이고, 강도 및 살인 범죄자는 주로 남성들이라고 한다. (KMH, 60대 중반 탈북여성) 각종 규범 및 통제에 대한 일탈 현상은 줄어들기는커녕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현재 북한사회는 ‘법을 어겨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즉, ‘비법의 일상화’이다.

3. 결혼과 이혼

1) 사랑과 결혼의 타산

북한 여성들의 혼인신고 기피, 만혼, 동거 선호 등이 증대하고 있다. 결혼하면 여성들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출신성분 및 집안을 보던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 여성들에게도 결혼의 제1조건은 남성들의 경제력과 발전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남성들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가 증대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부와 가족관계에서 여성이 독립적일 수 있는 연상연하 커플이 증대하였다. 똑똑한 남자들은 여자가 애 엄마로 애가 둘이 있더라도 장사를 잘하는 여자와 살려고 한다. 대개 남자들이 제대하면 20대 말~30살 정도가 되는 데 장사 경험과 능력이 있고 똑똑한 여자들은 이들보다 나이가 많다. 따라서 남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위이고 생활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여자와 살려고 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리찬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 체제 수립기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한 리찬이라는 엘리트들

연상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남자들이 자기보다 5살, 6살 이상의 여자와 사는 경우도 많다. 애가 둘이라도 관계없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의 생계부양 책임이 가중되면서, 당국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도 미혼 여성들 사이에 증대하였다. 가족생계를 여성, 특히 아내나 어머니가 책임지면서, 자신의 삶과 발전을 위해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한편 군대와 군수산업, 건설 돌격대 등 체제유지를 위한 집단 사업에 남성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적다. 이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면 대개 결혼하는데,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남자들이 드물다 보니 결혼하지 않는 소위 노처녀들이 많아졌다.

2) 이혼과 혼인신고 기피

북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여성주도 이혼 문제이다. 이혼 문제는 현상적으로 생존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해체 양상이기도 하나, 그 특성은 ‘북한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생계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묵시되었던 가부장적 부부관계가 폭발하는 양상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이전에는 웬만하면 참고 견디었던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과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과거와 달리 아내들이 이러한 남편의 폭력을 참지 않고 이혼하는 비율이 증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혼이 자유롭지 못한 재판이혼제도 하에서도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봉건적 부부관이 아래로부터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서 이혼한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한 마을에서 따로 살아도 사회적 시선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제력과 목소리가 커지고 무능력한 남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우월성을 강요하다보니, 마을 사람들도 이혼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관대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과거와 달리 부부싸움 시 여자들이 남편에게 대드는 사례가 증대하였다. 사회적으로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없는 살림에 장사에 나가 어렵게 가족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싸우며 맞기까지 하는 상황은 못 참겠다는 흐름이다.

한편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혼 판결이 용이해졌다. 특히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외도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가정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이혼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성중심성으로 재판이혼 시 세대주인 남성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의 재판부에서 남편의 이혼 제기를 아내의 이혼 제기보다 더 중시한다고 증언한다. 이와 같은 남성 중심적 이혼 판결이 여성들의 결혼 회피와 새로운 이성관 모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 전역에 이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당국이 이혼하는 자는 강제추방 하겠다는 조치를 내린 적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포를 중시하지 않는다. 결혼이나 이혼을 굳이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고 없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달이나 몇 년 살다가 힘들거나 싫으면 갈라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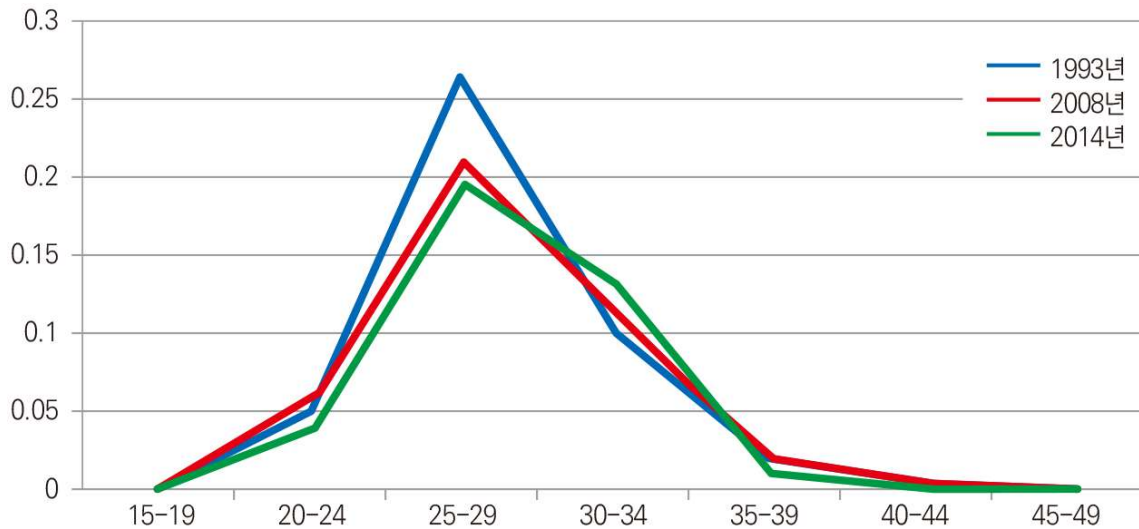
4.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 통제: 출산율 및 출산의지 저하

북한 사회 및 여성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계 수치는 출산율이다. 1993년과 2008년 북한인구총조사, 그리고 2014년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북한의 15~49세 기혼여성 총 10,03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북한의 출산율과 추세를 살펴보자. 북한의 2014년 현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력은 합계출산율(TFR) 및 출산연령, 출산간격, 평균 출생/현존/사망 자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합계출산율이다. 2014년 북한 기혼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은 1인당 1.89명이다.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는 2.13명이었고, 2008년 결과는 2.01명이었다. 이는 북한의 출산율이 지난 30여 년간 인구 대체수준보다 낮아져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출산력이다. 2014년 북한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0세이다. 1993년(센서스) 28.6세, 2008년(센서스) 28.7세로 출산율에 비해 출산능력의 변화 폭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배경으로 이전에는 25~29세 집중된 출생아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30~34세까지로 출산 폭이 넓어지는 흐름을 지목할 수 있다. 즉, 만혼 및 늦은 출산 경향의 증대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 추세를 <그림 1> 1993~2014년 북한 기혼여성 1인당 연령별 출산율 추세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 1> 북한 기혼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세(1993-2014)



자료: 중앙통계국·유엔인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평양: 중앙통계국·유엔인구기금, 2015), p. 52.

<그림 1>은 북한의 1993년, 2008년, 2014년 연령별 출산율을 보여 준다. 이 그림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만혼 흐름과 함께 북한 기혼여성 중 25~29세 연령대 및 30~34세 연령대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여성들의 출산 특징이라 평

가할 수 있다. 즉, 자연 임신이 주를 이루는 북한의 출산 환경에서는 25~34세 연령대에 출산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조사 대상자들의 첫째 출산 평균 연령은 24.9세이다. 10대의 출산은 0%이나 이는 북한 당국에 의한 공식적 조사라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간격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대상자인 18개월 간격 미만은 4.4%로 낮은 수준이다. 평균적인 출생 자녀수는 1인당 1.74명이며 평균적인 현존 자녀수는 1.71명이다. 35세 이상 북한 여성의 60%가 자녀를 두 명 두고 있다. 평균적인 사망 자녀수는 0.03명으로 경제난 완화 및 영양공급 증대로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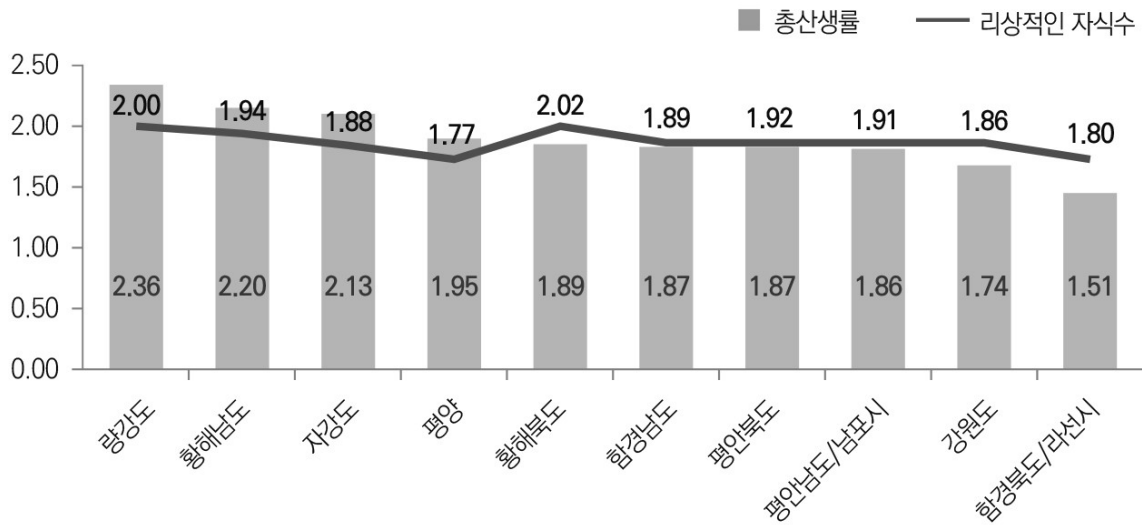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기피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 고난의 행군 시기 상당한 인구를 상실한 북한 정권은 2000년대 들어서 출산장려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임신과 출산시기 휴가를 증대하는 등 나름의 모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장사에 나서서 가족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산전산후 휴가 증대는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기 힘든 북한 여성들은 임신을 기피하고 임신해도 낙태를 많이 한다. 또한 부부가 밖으로 나가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가족 중에 장사나 양육 문제 때문에 임신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인한 출산 기피는 북한의 경제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기피’ 현상으로서의 변화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 고생하는 것보다, 1~2명의 아이를 낳아 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는 1~2명이다. 주목할 점으로는 김정은 시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1~2명은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고 증언하곤 한다. 특히 왕성한 출산 연령대인 20~30대 젊은층에서 자식을 낳지 않거나 1명 정도 희망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최근 탈북민들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기에 다수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 여성들의 평균 출산연령은 20여 년 전과 큰 변화를 확인하긴 어렵다. 그러나 기혼여성 집단 내부에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시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의 기혼여성들의 저출산 경향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평양에 사는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기혼여성들의 자녀수가 낮게 조사되었다.⁹⁾ 2014년 기준 북한의 산생실태를 보면 특히 학력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학력수준으로 보면, 대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고등중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높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지역별 총 산생률 및 이상적인 자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그림 2> 북한 기혼여성 1인당 산생률과 이상적 자녀수 차이(2014)

9)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pp. 52~56.



자료: 중앙통계국·유엔인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p. 60.

<그림 2>를 통해 볼 때 지역별 총 산생률은,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한 양강도 지역이 가장 높고(2.36명), 개방특구로 부유층이 많은 라선시가 가장 낮다(1.51명). 한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상적인 자녀수 의식조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은 황해북도(2.02명)이다. 반면, 가장 낮은 이상적 자녀수 결과를 드러낸 지역은 기혼여성 1인당 1.77명으로 집계된 평양이다.

즉,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도시지역 여성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저발전 농촌지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수의 자녀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 근대화된 여성들의 자녀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평양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이상적인 자녀수’ 인식이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북한 여성들의 시장 활동력이 증대되고 가정경제를 여성들이 꾸려 나가면서, 북한 사회에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의식이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 이념에 따른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 남아 선호사상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시장화를 경험하면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들과 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고 질문해 보면, 상관없다는 응답 및 딸이 좋다는 응답이 10명 중 각각 4명 정도 비율로 응답한다. 반면에 아들을 좋다는 응답은 20% 미만이다.

한편, 딸 또는 아들 선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남성일수록 아들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딸 선호 및 상관없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난다. 북한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딸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부장성이 강한 북한 사회의 어머니에게는 딸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딸이 아들에 비해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여성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변화가 큰 반면, 젠더관계에서 사회적 우위를 차지했던 북한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느리기 때문이다.

5. 탈북 모색과 탈북

북한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북한여성들은, 중국과 남한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된다. 물론 그 중 인맥이나 자금 뿐만 아니라, 강한 의식이나 동기가 있는 소수만이 탈북을 실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체제개방의 필요와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 자체가 절대위기 상황이었던 2000년 이전까지는 오로지 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순 탈북 후 귀환이나 생존을 위한 탈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체제가 급위기 국면을 넘긴 후에는, 더 나은 사회와 삶에 대한 동경과 욕구가 탈북의 주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쓴 정, 단 정 다 든 게 고향땅이잖아요. 자기 살던 집안이잖아요. 정든 사람들 있고, 정말 깨진 그릇까지 다 정드는 게 자기가 살던 곳이잖아요. 정든 사람들도, 정든 물건들도, 정든 땅들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탈북민들의 공통된 이유는 처음엔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 흑심한 식량난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각자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견지에서 볼 때는 죄인인데, 더는 발전할 수 없고, 들켜서 잡혀가고 살인을 치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흑심한 식량난으로 넘어온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처럼 출신성분이 걸리니까 발전도 할 수 없고, 시집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자기 원하는 대상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출신성분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게 바로 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희망이라는 게 다 절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성이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성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크게 상처를 입게 된 여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 살아야 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산다고 해도 하대가 태어나면 제 자식까지도 그 아픔을 겪으며 살아야 할 것이 뻔한데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산다면 그 땅에다가 제 하대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얼굴 모르는 외국인하고 외국 땅에다가 하나 뿌려버리든지, 밥이라도 실컷 먹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다 후손을 낳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하고 떠났어요...”(KYJ, 30대말 탈북여성)

전체적으로 북한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형성에 기초가 되고 탈북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요인은 경제적 문제이며, 특히 국경지역 주민탈북이 많은 것은 이 지역 경제상황이 권력의 핵심기반인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보다 더 나쁜 것과 탈북이 용이한 지역적 조건도 있으나, 무엇보다 중국과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정보 등 타국과의 비교 정보가 내륙보다 많이 유입된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 탈북여성은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중국도 이밥은 다 아무리 못살아도 다 이밥 수준”이라는 것과 “중국 사람이 다 한국에 돈 벌러 갔다.”라는 정보를 들으며 탈북을 모색했다고 한다. 이 경우 탈북민들은 탈북브로커와 중국인 장사꾼과 연계하곤 한다.(KMS, 30대 중반 탈북여성)

탈북 계기가 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부모·형제·자매를 중심으로 한 혈연 요인이다.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탈북한 후 브로커나 중국인 장사꾼,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족의 탈북을 제안 및 지원하는 경우이다. 한편, 2010년 이후에는 이러듯 탈북한 가족을 통한 탈북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하는 여성들도 증대하였다. 이혼 또한 탈북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사회에서 이혼이 많아졌다고 하여도, 이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지속되며, 대개 이혼 여성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이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는 이들도 있다. 남자는 이혼해도 대개 바로 결혼하고 능력만 있으면 별 차별대우를 안 받는데, 여성들에겐 여전히 뒷말이 나돌기 때문이다. 이 외 탈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신성분이다. 북한사회에서 진학 및 취업·결혼·사회생활 모든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적대계층 출신 주민들이, 식량난과 해외정보를 알아나가며 탈북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증언을 살펴보자.

“제 이름 뒤에는 그 항상 얼룩덜룩한 토대몽치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나 제가 버는 애다 재 돈 많다, 항상 아니면 재 아버지 정치범이니까. 그걸 다 낱알이 몽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내가 북한사회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렇게 차별 없는 데서 내 마음껏 돈 벌어보고 싶고, 정말 이렇게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다가도 그런 문제가 제일 가슴 아파요. 아버지 정치범이니까. 북한사회에서 정치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저 정말 최하층의 대상이고 더 대상할 나위 없이 쓰레기 집안이잖아요.”(PYO, 20대말 탈북여성)

출신성분 때문에 첫사랑에 실패하고, 고난의 행군시기 수많은 죽음 보면서 탈북하게 되기 까지를 한 탈북여성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곳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자 했어요. 이제 내가 내 스타일대로 시집 갈 수도 없고, 후대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곳이었어요. 자식 앞에 죄 같고. 어머니한테 제가 한때는요 잠이 안 와서 술을 사발에다 쏟아서 마셔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마시니까 정신이 핑핑 돌아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 때에는 술 없이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한테 하루는 제가 주정을 했대요. 왜 세상에 나를 낳았냐면서, 쥐약 어디 있냐면서 그걸 입에 넣고 죽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밤새 저 잡고 말리고 하면서 해서 밤을 샌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나자고 한 게...”(KYJ, 30대말 탈북여성)

한편 감시와 통제가 심한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다보니, 북한주민들은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려 하나, 대다수는 떠나고 싶은 욕구가 많아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살펴보자.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하다 나니까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든 걸 재고, 재는 동안에 어떤 거는 행운이 지나가 버릴 때도 있지만 무스그 생각한다 하면 소심해서 끝이 없이 생각해보고, 그거 결심 내린 다음에는 그 즉시 집행하려고 하는데 많이 결정하기 힘들어해요.(KMH, 60대 중반 탈북여성)

그러므로 탈북민 수의 증대 및 이들을 통한 해외 정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체

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거나 시도하는 여성들의 규모 또한 커졌다. 이들은 현재 북한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을 실행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전전략을 끊임 없이 모색하고 시행하는 북한체제 변화의 잠재적 주체들이다.

V. 결 론: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하여

북한여성의 생존전략은 권력의 작용에 타협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양상은 내핍과 출혈 노동, 관계망 극대화, 출산기피와 성매매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존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젠더정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여성들은 발전전략을 피하게 된다. 즉 권력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발전 전망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양상은 시장사회화 주도와 사유재산 축적, 조직과 규범으로부터 이탈, 가부장적 규범의 해체, 결혼관 변화와 이혼, 출산 억제, 그리고 탈북 모색과 탈북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회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북한여성의 의식 및 행위 변화가 한반도 평화와 양성평등으로 발전하기 위해 즉,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통일국면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여성의 빈곤화’와 ‘자매에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여성계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 총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의 젠더 구조와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구동독의 급변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 10년 넘게 서독주민, 동독남성에 이은 3등 시민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을 뿐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 문제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저항하였던 동독지역 여성의 수난사와 독일여성계의 고난을 떠올려보자. 가장 큰 문제는 서독여성들이 동독여성들의 역사와 의식 및 행위 양식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걸친 불화와 갈등 이후, 최근 동서독 지역 여성들은 새로운 행동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먼저 알아가기’, ‘사용하는 개념들의 상호 다른 의미들을 규명하기’, ‘차이를 이해한 후 동질을 확인하기’ 등 출발부터 다시하자는 것이다.¹⁰⁾

둘째, 북한여성에 대한 남한남성들의 왜곡된 시각 조정과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이주결혼 대상자로서 북한여성 수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북한 여성응원단을 접하면서 우리사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여성 신화’는 가부장적인 남북한 권력이 만들어 낸 ‘상상화된 신화’이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응원단은 북한권력의 수혜자 집단 성원으로 충성도가 검증된 후 선별된 북한권력의 여성성을 내면화한 일부 권력층 내 북한여성이며, 그것도 북한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남한 언론의 가부장적 시각에 의해 재구성된 그녀들의 일면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흥미위주로 과대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교류 및 왕래가 확대되면서 일부 깨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북한체제가 급속히 변하고 남북한 간 주민왕래 및 통합 모색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여성들의 생존전략과 남한남성들의 선호 등이 맞물려 이주결혼

10) 냉전체제에서도 동서독이 남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높고 시민의식이 형성된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통일체제를 고민할 때 한반도에서 그 위험의 수위와 폭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한국여성계의 인식과 고민들은 『여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자료집』(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5) 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요는 북한여성에게 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민의 동반발전이 가능한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시각으로서 북한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수정할 필요도 있지만, 남북한 인적 교류 증대 및 급변사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빈곤화’를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려 하는 남한 여성계의 북한여성에 대한 시각 확보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여성 연구의 저발전과 북한에 대한 남성중심적 정치-학계-언론의 권력배치, 그리고 북한체제의 가부장성 및 권력의 젠더 위계 정책에 짓눌려, 한국 여성계는 젠더시각에 기반한 통일운동을 제대로 조직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남한사회의 가부장성과 싸우기도 버거운 남한 여성계에서 북한여성의 문제나 통일문제는 인식의 주 대상이 되기 어려웠고 아직도 그러하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주제이므로, 일단 한쪽으로 밀어놓은 채 시기에 맞춰 이따금 들쳐보는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공동의 사회구성체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남북여성 교류가 추진되곤 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했거나 이들을 접촉했던 일부 남한 여성들 중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과 수령이 북한여성의 해방을 위해 세운 남녀평등과 사회복지 제도를 향유하고 있다는 북한 여성계의 주장에 이들과의 연대 희망을 포기한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여성간부를 접한 일부 여성학자들에게서는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될 북한여성’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적 만남을 통해 드러난 권력층 내 북한여성의 체제수호적 발언에 대한 ‘선협적 판단’은 향후 전개될 남북 여성교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모색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구동독 여성계에 대한 구서독 여성들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봉건적이고 수동적인 피해자’ 또는 ‘계몽의 대상’으로 북한여성을 접근하게 되었을 때, 남북한 여성계의 상호불신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매애를 파괴할 것이며,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한 사회와 여성들은 통일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통일비용이란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등’이다. 2003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총 2,000억~5,000억 달러(약 240조~600조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하였고, 2006년 10월 골드만삭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 통일시기 등에 따라 통일 후 10년간 최소 7천700억 달러(약 855조원)에서 최고 3조5천500억 달러(약 3천94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¹¹⁾ 우리는 이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북핵문제에 짓눌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한 권력층과 사회 전체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여전히 어려우며 북한체제가 ‘시장 사회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남한 내 소득구조의 양극화 심화와 국민 간 경제사회적 위계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조력해야 할 남한 사회에 커다란 숙제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를 압박하여 북한정권 붕괴 및 교체를 유도하는 것은 한반도 내정에 대한 미국·중국·일본 국가권력의 직접개입 가능성을 크게 한다. 또한 혼란 국면과 통일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 한국 내 정치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 간 대립 등 현재 한반도 민주주의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폭발하게 할 것이다.

11) 『연합뉴스』, 2006년 10월 21일자.

무엇보다 이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데, 한국 내 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고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 주민 및 노동자·농민 등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여성의 경제활동이 증대되고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남한여성들은 어찌면 ‘그나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가족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하층민 여성들의 고통은 심화될 수도 있다. 남한 사회와 여성계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저 노동유연화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저임금 시장 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인가?

다섯째, 그리하여 우선 우리는 한국사회의 ‘가장(家長) 신화’에 의해 당연시 되고 있는 ‘남성-정규직 노동/ 여성-비정규직 노동’의 구조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와 ‘부의 사회적 분배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상당한 통일 비용과 혼란의 감당 주체는 다수 한반도 일상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노동에 따른 부의 사회적 분배’가 발전되는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또한 한국 내 민주주의와 사회합의 구조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갑작스런 통일국면에 들어서면, 그 사회혼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그 충격파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의 직접적 주체이며 그 전개과정에 따라 피해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노동주체들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무엇을 위한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화와 양성평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과정에서부터 여성들은 배제되어, 이후 어떠한 형태든 평화체제 형성 및 통합국면에 들어선다면 철저한 소외그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 저·곽동훈 역,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서울: 현실문화, 1995).
-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리경림, “선군시대에 창조된 생활문화,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 배우자.” 『조선여성』 (2006년 2월호).
- 리순금, “선군시대의 애국여성.”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 리춘길, “녀맹조직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나가자.”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박영자,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 노동계급화와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4).
-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권 2호(서울: 통일연구원, 2006),
- 박영자, 『북한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 오재림 외, 『한국사회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2호. 2006년 8월.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8호. 2006년 9월.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82호. 2007년 7월.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83호. 2007년 8월.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5).
- A. Basu, "The Many Faces of Asian Feminism," Asian Women. 5, Seoul: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The Sookmyung Women's Press, 1997.
- Anthias Floya & Yuval Davis Nira, "Women-Nation-State," J.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New York: Routledge, 2000.
- George L. Mosse, Nationalism and Sexuality,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 Gender, Work, Space. New York:: Routledge, 1995.
- 『연합뉴스』, 2006년 10월 21일자.